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2016년 12월 13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2.12일(월) 14:00부터 보도가능)

배포일시	2016. 12. 12. (월)	담당부서	에너지자원정책과 원전산업관리과
담당과장	김정일 과장 (044-203-5120) 이옥헌 과장 (044-203-5321)	담 당 자	임채욱 서기관(044-203-5124) 엄재영 서기관(044-203-5121) 김혜원 사무관(044-203-5349)

"새로운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 청취"
- 산업부, 제1차 에너지정책 고위 자문단 회의 개최 -
- 에너지안전 민간자문위원회의 내진대책 권고안도 제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2월 12일(월) 더 플라자호텔(서울)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제1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 기후변화, 지진, 미세먼지 등 최근 에너지 분야의 각종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16.12.12(월) 11:30~13:00(오찬), 더 플라자 호텔(서울)

◈ 참 석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회성 IPCC 의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정근모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한준호 삼천리 회장, 김명자 지속가능기업발전협의회 회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 박주헌 에경연 원장, 황주호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 대표

◈ 주요내용 : 에너지 분야 현안 및 새로운 정책방향 논의, 에너지시설 내진안전 종합대책 권고안 발표 등

□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수출, 통상, 에너지, 산업 등 산업부에 맡겨진 소임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 특히,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각종 에너지 시설의 안전 관리에 모든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에너지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주 장관은 올 한해 산업부가, 격동하는 대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 속에서도 환경과 안전 등 소비자 후생을 중시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의미 있는 전환을 이루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하고,

○ 특히, 에너지신산업종합대책(7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11월)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기요금체계 개편(12월), 석탄화력 발전소 단계적 축소(7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발표(7월),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6월) 등을 의미있는 정책성과로 평가함.

□ 주 장관은 "에너지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향후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에너지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원로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함.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12 지진 이후 각종 에너지 시설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구성된 '에너지안전 자문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하였음

① 국내 원전은 9.12 지진에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내진보강, 비상대응 강화 등을 권고

- 원전 인근을 최우선적으로 한 국가 차원의 단층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지진을 포함한 모든 지진·단층을 고려한 원전부지 안전성 재평가 권고

- 더 큰 지진과 지진·해일 등 복합재난에 대응토록 원전 안전 관련 핵심 설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 내진설계 역량 향상 필요

- 지진, 방사능 누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진 기능의 비상대응 시설을 원전 부지 내에 설치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체제 마련 필요

- 원전 분야에 특화된 지진대응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방폐장의 지하수 배수설비 다중화 및 2단계 표층처분시설 등 향후 건설예정 시설의 내진성능 상향 검토 필요

② 석유·가스·전력 등 주요 에너지시설의 경우

- 법령상 의무규정에도 불구 내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 빠짐없이 내진기준을 설정하고,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해 내진성능 점검 후 필요한 성능 보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전력·가스·석유 등 주요 에너지원 별로 지진상황에 따른 비상공급 체제를 구축하고 지진피해 발생시에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백업시스템 구축이 필요

- 에너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진대응 예산·인력·조직 확충을 통한 초기대응 능력 제고 필요

□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전 자문위원회가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원전 등 우리 에너지 시설의 지진 대응 체계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원전은, 규모 7.0(0.3g) 수준 이상의 내진성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강력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또한, 석유, 가스, 전력 등 기타 에너지시설에 대해서도 법령상 내진 기준의 완비를 조속히 추진하면서, 지진규모에 따른 에너지원별 비상 공급 매뉴얼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답변함.

□ 주 장관은 동 권고안 내용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국민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연내에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이고,

○ 필요시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진대응 예산과 인력 등을 확충하는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 우리 에너지 시설의 지진 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함.

※ 회의 종료 후 고위자문단 위원들의 발언 중심으로 추가자료 배포 예정

별첨 1. 행사 개요
2. 참석자 명단
3. 에너지 안전 자문위원회 개요
4. 장관 모두말씀 전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임채욱 서기관(044-203-51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행사 개요

□ 추진목적

○ 신기후체제 발효, 지진 등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발생 등 **대내외 에너지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정책전환 요구 증대

○ 각계를 대표하는 에너지 분야 명망있는 원로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을 운영,** 신뢰받는 新에너지정책 수립·추진

□ 행사내용

○ **일시·장소 :** 12.12일(월) 11:30 ~ 13:00, 플라자호텔 4층 오크룸(서울)

○ **참석자** : 장관님, 고위 자문단 위원*(7인), 에경연 원장(발제자), 황주호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 대표(발제자), 에너지산업국장, 원전산업국장 등

* 위원 중 이재훈 총장, 허동수 회장은 해외출장, 회사일정 등 사유로 금번 회의 불참

□ 세부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1:30-11:33	(3')	▪ 참석자 소개	
11:33-11:40	(7')	▪ 기념촬영	
11:40-11:45	(5')	▪ 인사말씀	장관님
11:45-12:00	('15)	▪ (발표①) 국내외 에너지환경변화와 과제	박주헌 에경연 원장
12:00-12:10	('10)	▪ (발표②)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 권고안	황주호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 대표
12:10-12:57	('47)	▪ 자유토론 - 원탁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논의	참석자
12:57-13:00	(3')	▪ 마무리말씀	장관님

※ 기자단에는 인사말씀까지 공개

참고 2 참석자 명단

□ **고위 자문단**(7인)

구분	성명	약력	비고
국제기구 (2)	 이회성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의장 ○ 前)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영훈	○ 세계에너지협의회 의장 ○ 대성그룹 회장	
산업계 (2)	 구자균	○ LS산전 대표이사 회장 ○ 스마트그리드협회 회장	국회토론회 참석으로 12:30분경 이석
	 한준호	○ 삼천리 대표이사 회장 ○ 前)한국전력사장, 前)중소기업청장	
학계 (2)	 정근모	○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 前) 과학기술처 장관	
	 김태유	○ 서울대 교수 ○ 前)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 보좌관	
사회단체 (1)	 김명자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 그린코리아 21 포럼 이사장	

□ **발제자**(2인)

구분	성명	약력	비고
1	 박주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	 황주호	○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 위원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팀장	

참고 3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 개요 및 현장점검 추진경과

□ **(추진배경)** 에너지시설 지진 대응능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 **'에너지안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16.9.23)

□ **(구성)** 원전·지진·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전·석유·가스·전력 등 **4개 에너지시설별 작업반**을 운영

○ **(자문위원회)** **4**개 작업반별 안전점검 결과 평가와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시설 내진 등 안전 종합대책 권고안 제출**

○ **(작업반)** 에너지시설별 현장점검(내진기준·대응 매뉴얼 적정성 등), 해외 사례(안전관련 규정 등) 분석, **시설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 구성체계 】



□ **(현장점검)** 근본적 에너지시설 내진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원전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지진대응 실태점검 실시**(9.30~11.4, 1개월)

○ **(점검대상)** 원전·방폐장, 석유·LNG인수기지, 화력발전 등 **78개 시설**에 대해 64명(연인원 633명)을 투입하여 **60회 현장점검** 실시

○ **(점검사항)** ①에너지 전 과정(도입~공급~사용자)의 **내진기준·성능**, ②지진감지·차단시스템, 비상매뉴얼, 안전조직·투자 등 **지진대응 역량**

참고 4 장관 모두말씀

<인사말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에너지 분야 원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지만,

저를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은
수출, 투자, 통상, 에너지, 산업 등 산업부에 맡겨진 소임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분야 원로 여러분을 모시고
최근 현안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에너지정책 성과 평가>

저는 금년 한해 격동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의미있는 정책 성과들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금년 7월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종합대책"과
최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에너지 신산업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높은 각종 현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 7월, 노후 석탄 발전소 폐기 등 미세먼지 대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 수십년간 처리하지 못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로드맵을 올해 최초로 마련하였으며,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융자 예산 1,000억원도 새롭게 확보하였습니다.

<에너지시설 내진 안전 종합대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12일 지진 발생 이후 우리부는
민간 안전 전문가들 중심으로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잠시후 자세한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그 어떤 시설보다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내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원전 인근을 최우선적으로 한 국가 차원의 단층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지진 등 모든 지진·단층을 고려하여
원전부지 안전성 재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원전의 안전 관련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2018년까지 규모 7.0(0.3g) 수준으로 보강하고,
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전 부지내에 면진기능이 있는
비상대응 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상황 체험과 비상대피 행동요령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원전 이외에도 전력·가스·석유 등 기타 에너지 시설의
지진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법령상 내진기준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 빠짐없이 내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후한 시설의 내진성능 보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원별로 지진규모에 따른 비상공급 매뉴얼을 마련하고,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진대응 예산과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연내에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준비 및 당부말씀>

저는 금년 한해 다양한 에너지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긴 호흡으로 대내외적인 변화의 흐름을 꿰뚫고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곧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화석연료의 부활과 신재생에너지의 위축 등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일부에서는 우려하고 있지만,

환경과 안전 등을 중시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전 세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너지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이
새로운 21세기 에너지 정책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며,
지금이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적기라고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로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베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